



Original Article

간호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에서 영상을 활용한 팀 디브리핑에 대한 학습자의 경험

김영일¹, 백주연^{2*}

¹영진전문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²영진전문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Learner's Experiences with Video-Based Team Debriefing in Nursing Simulation Training

Young Il Kim¹, Juyoun Back^{2*}

¹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Yeungjin University, Daegu, Republic of Korea

²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Yeungjin University, Daegu, Republic of Korea

*Corresponding author: Juyoun Back, backjuyoun@yju.ac.kr

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ed to provide data for more effective debriefing methods by understanding and describing the meaning of specific and realistic experiences of learners using video-based team debriefing in nursing simulation training. **Method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s using semi-structured questions with seven senior nursing students who had completed a nursing simulation practicum course between September 22 and October 2, 2025. Data were analyzed using phenomenological techniques outlined by Colaizzi(1978). **Results:** Twelve theme clusters and five categories were derived from the data. They were classified into the following 5 categories: immersed in debriefing; constraints on debriefing; re-evaluating oneself as a prospective nurse; growing collaboration and interpersonal skills; and growing confidence in nursing problem-solving. **Conclusion:** Learners who experienced video-based team debriefing during nursing simulation training effectively reflected on their practical nursing activities and desired more in-depth debriefing. Furthermore, it effectively enhanced nursing competencies of communication, teamwork, collaboration, and confidence. However, performance evaluations and team members' personalities hampered the smooth progress of the debriefing. This suggests that the proposed method can serve as a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debriefing methods.

Keywords: Education, Nursing Student, Qualitative Research, Simulation Training

주요어: 교육, 간호대학생, 질적연구, 시뮬레이션교육

1. 서론

간호교육기관은 국내의 보건의료 현장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간호사를 배출하기 위해 이론과 실습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1]. 특히 임상 실습을 통해 이론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임상에서 간호업무를 경험하며 임상수행능력을 길러야 하지만, 환자의 권리 강화와 간호 학생의 양적 증가로 인한 교육기관과 실습 기관의 불균형 등 직접 간호 활동이 제한되어 대부분 관찰 위주의 임상실습이 이루어져 간호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역량을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2]. 이에 임상실습 교육의 제한점을 보완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간호 실무능력을 기르기 위해 임상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임상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상황을 시나리오화하여, 사람과 유사한 반응을 보이는 시뮬레이터 및 표준화 환자를 활용하여 간호 학생들이 직접 간호 문제해결을 수행하고, 그 과정에 대한 디브리핑을 통해 임상 지식과 간호술을 습득하고 비판적 사고를 함

양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1].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은 사전 브리핑(Pre-briefing), 시뮬레이션 구동(Simulation running) 및 디브리핑(Debriefing)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3]. 그 중 디브리핑은 시뮬레이션 활동을 인지에 동화시켜 학습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구동 후 이에 대한 경험과 관련된 토론과 성찰을 하는 것이다[4]. 이렇듯 디브리핑은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이를 통해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5,6], 임상수행능력[7-10] 등 보건의료 현장에서 요구하는 필수 간호역량을 습득할 수 있다.

디브리핑은 시뮬레이션 구동 종료 직후에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지만[3] 시간당 배정되는 학생 수가 많아 시뮬레이션 구동 직후 디브리핑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 또는 팀 기반, 영상매체 활용, 일지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디브리핑을 실시하고 있다[11]. 특히, 녹화된 영상을 활용한 디브리핑은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기억에 의존하는 것보다 시뮬레이션 경험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학습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3]. 또한 학습자들은 영상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할 수 있어 성찰에 효과적이다[8]. 그리고 팀 디브리핑은 시뮬레이션 구동에 함께 참여한 학습자들이 팀을 이루어 토론을 통해 시뮬레이션 경험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학습자가 주도하여 시뮬레이션 경험을 분석하고 성찰하므로 팀워크와 자신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시뮬레이션에 더욱 몰입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2]. 최근 디브리핑과 관련된 연구로는 주로 디브리핑의 효과 검증에 대한 양적연구들이 진행되었다[5-11]. 이에 영상을 활용한 팀 디브리핑에 대한 학습자의 경험을 심층적이고 통합적으로 탐색하여 디브리핑 방법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에서 영상을 활용한 팀 디브리핑을 경험한 학습자의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경험을 확인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디브리핑 방법을 위해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에서 영상을 활용한 팀 디브리핑에 대한 학습자의 경험을 탐색하기 위해 포커스 그룹 인터뷰 내용을 Colaizzi [13]의 분석 방법을 활용한 현상학적 질적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모집단은 간호 대학생으로 D시 일개 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간호 대학생을 근접 모집단으로 하여 편의 추출하였다. 참여자 선정 기준은 임상실습 경험이 있고, 간호 시뮬레이션 실습 교과목을 이수한 4학년 재학생 중에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25.4세(범위: 21~31세), 남자 4명, 여자 3명이었다.

3. 자료수집

자료수집 기간은 2025년 9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였다. 2개의 팀으로 각 그룹은 4명, 3명으로 구성되어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인터뷰는 질적 연구와 시뮬레이션 실습 교과목 운영 경험이 있는 연구자 2명이 참여자가 편안하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면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대학의 프로젝트 강의실에서 진행하였다.

간호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에서 영상을 활용한 팀 디브리핑에 대한 학습자의 경험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한 질문으로 시작 질문은 “간호 시뮬레이션 실습 시 영상을 활용한 팀 디브리핑의 경험은 어떠하였습니까?”, 주요 질문은 “간호 시뮬레이션 실습 시 영상을 활용한 팀 디브리핑이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에게 도움이 된 부분은 무엇입니까? 본인에게 힘들었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간호 시뮬레이션 실습 시 영상을 활용한 팀 디브리핑에 영향을 준 요인은 무엇입니까? 디브리핑에 도움이 된 요소는 무엇입니까? 디브리핑에 방해가 된 요소는 무엇입니까?”, “간호학 학습에 디브리핑이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마무리 질문은 “간호 시뮬레이션 실습 시 영상을 활용한 팀 디브리핑과 관련하여 개선할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와 같은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였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영상을 활용한 팀 디브리핑에 대한 학습자의 경험과 관련되는 참여자의 진술 내용이 명료하고 더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적절한 추가 질문을 하였다. 인터뷰는 자료가 포화 되어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발견되지 않고 내용이 반복되는 시점에서 종료되었고, 인터뷰에 소요된 시간은 각 팀당 1시간 10분이었다.

인터뷰 내용은 참여자에게 동의를 받은 후 모두 녹음을 하였으며, 내용의 보안을 위해 연구자는 현장에서 의미 있는 표정과 행동 등을 메모하였다. 녹음한 내용과 메모 내용은 인터뷰가 끝난 후 바로 연구자가 직접 전사하였다.

자료수집 과정 중 연구자들은 Lincoln과 Guba [14]의 질적 연구의 평가 기준을 따라 질적 연구 결과의 엄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즉, 면담 과정 중 참여자로부터 영상을 활용한 팀 디브리핑에 대한 학습자의 경험에 대한 그들의 생생한 경험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느낌을 살려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였으며, 분석한 내용은 다시 참여자에게 확인받는 과정을 거쳐 내용의 진실성(credibility)을 확보하였다. 연구 결과의 적용 가능성(applicability)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 참여자만의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간호대학생의 간호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에서 영상을 활용한 팀 디브리핑에 대한 학습자의 경험에 대한 속성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고자 하였으며, 일관성(consistency)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 간 지속적인 비교분석과 논의를 통해 의미 있는 진술 내용에서 주제를 발견하고 이로부터 주제 모음을 통합해 나가는 과정을 거쳤다. 마지막으로 중립성(neutrality)을 확보하기 위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문헌 고찰을 하지 않았다. 필사 후에는 녹음된 내용을 다시 들으며 내용을 확인하였다.

4. 자료분석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자료는 연구자가 함께 모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Colaizzi [13]가 제시한 자료 분석 방법에 따라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절차는, 먼저 인터뷰 시 녹음한 내용을 진술자의 진술 그대로 필사하였다. 필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읽으면서 현상과 관련 있는 진술들을 추출한 다음, 추출된 진술들을 연구자의 언어로 재구성하였다. 그리고 연구자의 언어로 재구성된 의미들 중에서 비슷한 것끼리 모아 주제들을 분류하였다. 비슷한 주제들끼리 모여서 더욱 추상화된 주제를 도출하였다. 최종적으로 연구자들이 도출한 간호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에서 영상을 활용한 팀 디브리핑에 대한 학습자의 경험에 대한 본질적 구조를 반영하는 주제 모음이 타당한지를 검증받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에게 그들의 경험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였다.

5. 윤리적 고려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자가 연구 목적, 필요성, 방법, 기간 등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동의서를 받았다. 대상자를 윤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를 연구 목적 외에 공개하거나 사용하지 않으며, 익명성, 비밀보장 및 원할 경우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참여자에게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였다.

III. 연구결과

본 연구는 간호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에서 영상을 활용한 팀 디브리핑에 대한 학습자의 경험을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12개의 주제 모음과 5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Table 1).

Table 1. Learner's Experiences with Video-Based Team Debriefing in Nursing Simulation Training (N=7)

Categories	Theme clusters	Theme
Immersed in debriefing	Learn the meaning and methods of debrief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irst time debriefing, so didn't know how to do it • Thinking only about emotion about simulation running, but gradually started thinking about solving nursing problems • Through debriefing, will learn how to debriefing
	Watch the video together and share opin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am members watch the record video together and engage in active discussions • Share different opinions about a nursing situation • Can check the parts don't remember through record video • Can check the wrong part through the record video
	Want a clear approach, including pre-brief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and instructor feedba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lear guidelines regarding the purpose and method of debriefing are needed during the pre-briefing • Debriefing questions help understand what needs to be discussed clearly • Feedback from the instructor can help the team identify issues they may have missed
	Considering for improvement for efficient debrief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ant a variety of questions to foster extensive thinking • Consider various debriefing method • Thinking about nursing simulation spaces
Constraints on debriefing	Team mood influences discus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f team members are quiet, team discussions will not be active • If team members are outgoing, team discussions will be lively • Hard to be honest because afraid team members will feel bad • Worried that team members won't accept opinion • Not closer to each other, the more objective team discussions
	Writing guidebook becomes more focused than discus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briefing is included in the grade evaluation, writing guidebook is considered more important than discussion • Discussion is important, but it is a shame to be so preoccupied with writing guidebook • Finding answers for grades rather than reflection
Re- evaluating oneself as a prospective nurse	Faced own faults, but gradually come to accept 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eel ashamed to share own mistakes with team members • Don't want to accept that own mistakes • Discovered habits didn't know had • Find looking for wrong rather than well • Seeing repeated mistakes made accept it
	Reflecting on the competencies of nur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scovered bad habits as a nurse • Want to break bad habits • Reflect on oneself • Reaffirming the competencies nurse need to have in clinical practice
Growing collaboration and interpersonal skills	Realizing the importance of teamwor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ocused only on own role, but gradually start helping team members with their mistakes • Every action is intended to contribute to teamwork • Worried that might have a negative impact on team members performance • Gradually become more active in discussion
	Opportunity to improve communication skil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scussion while understanding the emotion of team members • To lead while discussion is not active • Accepting different opinions
Growing confidence in nursing problems solving	Learn how to cope with nursing proble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briefing improves nursing progress during simulation running • To prepare oneself to solve with nursing problems • Fade anxiety when deal with simulation running • When become a nurse, wanted to do debriefing to help adapt to clinic
	Applying nursing simulation training experience to clinical pract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ply what learn through nursing simulation to clinical practice

1. 디브리핑에 몰입되어감

1) 디브리핑의 의미와 방법을 학습함

참여자들은 디브리핑을 시뮬레이션 실습 시 처음 해보게 되어 처음에는 시뮬레이션 구동에 대해 느낀 점만 생각하고 토론을 하다가 점차 간호 문제해결에 대해 성찰하게 되었고, 디브리핑을 통해 디브리핑의 의미와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고 하였다.

“처음에 저희 활동에 대해 얘기했다기보다는 제가 느꼈던 점을 얘기했던 거 같아요. 이때는 ‘당황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몰랐다’, ‘안절부절했다’라는 말을 더 많이 했던 거 같고, 모듈을 해가면서 그 상황에서는 어떤 통합적인 자료들을 모아서 어떻게 간호 문제를 도출해야 할지, 또 다른 간호 문제에 대해 생각을 못했다는 것이 조금 아쉬웠다는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 초반에는 그냥 나의 감정에 대해서만 생각했다면, 가면 갈수록 조금 더 문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게 됐어요.”(참여자 1)

“디브리핑을 처음 해봤어요. 디브리핑에 대한 거부감이 좀 덜해지는 느낌, 이제 신규간호사가 되던, 아니면 이런 디브리핑을 해야 되는 현장에 갔을 때, 내 의견을 낼 수 있고 남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데에 있어서 거부감이 좀 덜해진 느낌입니다.”(참여자 3)

“저도 처음 디브리핑할 때는 약간 단순히 생각해서 본인이 이 실습을 하면서 느낀 점을 말하는 건 줄 알았어요.”(참여자 4)

“디브리핑 자체가 뭔지 몰랐는데,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알게 되었어요. 조원들이랑 의논해서 간호하는 과정이랑 방법 같은 거 찾아서 할 수 있는 거다.”(참여자 7)

2) 영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함

참여자들은 시뮬레이션 구동 시 촬영한 영상을 팀원들이 함께 영상을 보며 같은 상황에 대해 실시간으로 의견을 나누었고, 한 상황에 대해 각 팀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어 성찰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구동 시 미처 기억하지 못한 부분과 나의 간호 활동에 대해 내가 잘못 알고 있던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실습했을 때 하고 디브리핑을 했을 때 날짜가 갇이 있을 때, 확실히 영상을 보면서 자신이 했던 행동들을 쉽게 떠올릴 수 있어서 좋았고. 한번 하고 나면 다 기억이 안 나서 까먹는데, 계속 돌려볼 수 있으니까 어떻게 행동했는지 상기시킬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던 거 같아요. 저는 디브리핑을 할 때 동영상과 같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다 따로따로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걸 보고, 저 사람은 저 파트를 보고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힘들었는데, 다 같이 보니까 딱 stop 해서, 이 부분 좋았다. 이렇게 하니까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지속될 수 있었어요.”(참여자 2)

“디브리핑할 때 탭 하나로 같이 봤거든요. 같이 보니까 같은 장면에 대해서 서로서로 다른 관점을 이야기하니까, 다양한 생각이 모였어요.”(참여자 4)

“확실히 영상 찍는 게 저희가 까먹기 때문에 도움이 된 거 같아요. 조금 민망하긴 한데 두세 번 보다 보면 적응이 돼서. 영상이 있으면 도움을 받아서 이때 이렇게 행동했구나 하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영상이 없으면 안 돼요. 영상이 있어야 좀 더 저를 볼 수 있는 거 같아요. 생각보다 영상을 보면 제가 다니는 동선이 되게 지저분해요. 그래서 우왕좌왕하는 것도 느끼고. 간호 현장에 가서 그렇게 하면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를 보려면 영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기억을 해도 제가 그렇게 동선이 꼬여있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참여자 5)

“영상보기 전에는 ‘아 너무 잘했는데’ 자아도취 해서 ‘아 너무 잘했다’이랬는데, 진짜 막 중간에 알코올 솜 빼먹고 환자가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제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참여자 6)

“저도 꼭 필요하다. 저는 맨 처음 영상 봤을 때 저는 제가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되게 마음이 급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되지’이랬는데, 저는 그냥 가만히 서 있길래. ‘왜 저렇게 가만히 서 있지?’ 조원들은 열심히 하는데. 실제 임상에서 가만히 서 있는 간호사가 되는 거니까. 임상에서 가면 내가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성찰을 할 수 있었어요.”(참여자 7)

3) 사전브리핑, 구조화된 질문지와 교수자의 피드백 등 명확한 방식을 원함

참여자들은 디브리핑을 처음 접해왔기 때문에 사전브리핑 시 디브리핑에 대한 목적, 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고, 디브리핑 질문을 통해 토론해야 할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으며, 교수자의 피드백을 통해 팀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교수님께서 저희의 잘된 점을 계속 부각시키시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안 된 점도, 잘못된 점도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잘못된 점을 영상을 보면서 계속 찾게 되니까 교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잘된 점을 또 계속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는 팀 안에서도 ‘이건 잘했고, 이건 개선

하면 돼' 이렇게 서로 으쌔으쌔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또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처음 시뮬레이션할 때는 통합 시뮬레이션에 대한 목적 이랑 정의랑 상황이 계속 변할 거고, 그다음에 의사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교육을 해 주셔서 좋았어요. 교수자에 대한 교육 지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저는 조금 더 중요하다고 느꼈던 거 같아요.”(참여자 1)

“저는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한 번 더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다 통일시키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시뮬레이션 방식, 디브리핑 방식.”(참여자 4)

“놓치는 부분을 다 같이 몰라요. 교수님은 체크하는 부분을. 예를 들어 약물을 재는 거면 저희는 했다 치고 했던, 5 right을 제대로 안 지켰어요.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거를 저희가 다 비슷하니까 다 인지를 못 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술기를 잘했으니까 ‘술기 잘했다, 잘 들어갔다’하는데, 피드백 들어올 때 ‘5 right 확인했니?’ 하면 저희가 다 ‘아!...’. 그래서 조금 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의 피드백이 들어와야 그런 거를 인지하는. 저희끼리 디브리핑을 하고 뒤에 피드백이 있어야 할 거 같아요. 하나씩 짚어 들어오는 게 있어야 더 많이 생각하고 거기에 생각이 이어지는데, 저희끼리만 하면 다들 고만고만해서 금방 생각하고, 금방 끝내고. 빨리 끝나요. 생각의 폭이 좁아지는 거 같아요. 남는 시간에 조는 애들도 있고. 그니까 그 시간 자체를 충분히 활용 못 하는 느낌이 있어요.”(참여자 5)

“같이 디브리핑하는 애들의 수준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다 알면 같이 얘기할 게 있는데, 너무 다 비슷하니까 휩쓸려간다 해야 하나? 표면적으로는 다 잘하는 거 같은데, 교수님께서 지적을 하면 ‘아 맞다’ 이렇게 되는. 자유롭게 하면 저는 오히려 못하는 스타일이라, 정형화된 틀이 있어야 잘 할 수 있어요.”(참여자 6)

“교수님이 중간에 개입해 주시는 게 좋아요, 뭔가 배우는 거 같고. 저희끼리만 하면 ‘교수님이 저희한테 관심이 있나? 평가는 어떻게 하시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어요.”(참여자 7)

4) 효율적인 디브리핑을 위해 개선점을 고민해 봄

참여자들은 보다 폭넓은 사고를 위해 다양한 질문이 필요하고, 보다 효율적인 디브리핑을 위한 방법과 교육 공간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고 하였다.

“영상을 반 전체가 같이 보는 게 더 디브리핑이 아닐까라는 느낌이 들어요. 같은 조에서는 잘못된 점을 말 못 할 거예요. 교수님께서 한꺼번에 보여주고 ‘뭐가 잘된 거 같아요?’ 다른 조한테 물어보면 다른 조는 바로 말할 거거든요. 저희 반 애들도 3학년 때부터 했으면 좋았겠다는 얘기를 해요. 오히려 2학년 때부터 하면 어떨까. 질문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잘된 점, 못된 점이 아니라, 느낀 점만 말할 수 있는 질문만 있는 거 같아요. 본인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 수 있는 질문이 있었으면. 자기의 생각을 적는 질문보다는, 여기에 답이 있을 거 같은 질문이예요. ‘내가 이렇게 적으면 교수님은 어떻게 하지?’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 못 한 거는 가서 책 보면 되거든요.”(참여자 1)

“공간이 트여 있으니까 (영상)소리를 키워도 말소리가 잘 안 들리는 점은 방해가 되었어요. 저는 생각 했는 게 영상을 저희만 보는 게 아니라 반 전체가 같이 보면서... 중복되는 질문이 많아요. 잘못된 점, 개선할 점은 너무 비슷해요.”(참여자 2)

“개인 디브리핑이랑 단체 디브리핑 두 개가 있는데, 근데 보통 단체를 하는 거에 보면 제 개인에 했던 거를 그냥 그대로 넣는 느낌이 강해서. 팀원으로서의 서로의 뭐가 잘못된 점과 잘한 점에 대해서는 딱히 얘기 안 하고.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개인 거는 나중에 하되 먼저 팀을 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임상실습 전에 시뮬레이션을 하는 게 좋은 거 같아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오히려 실습을 못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차라리 그런 애들이 통합 시뮬레이션을 하고 실습을 나갔을 때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참여자 3)

“조금 더 디브리핑에 대한 취지를 가지고 갈 거면 차라리 도화지 하나 펼쳐놓고 짹짹 써라.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디브리핑 취지에 맞지 않나. 지금은 지침서 채우기, 숙제하는 느낌이 더 강했어요. 애들이 다 적고만 있어요. 그게 디브리핑이 맞나?”(참여자 5)

“영상 볼 때 옆에 조 얘기가 들리니까 방해가 됐어요.”(참여자 6)

“디브리핑을 하고 써야 했는데, 모든 모듈이 끝나고 쓰는 게 더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모듈 하나가 끝났을 때는 대화로 ‘너희가 어땠는지 얘기해 봐’하는 게 좋지 않을까? 모듈 4개가 다 끝나면 정리해서 적는 게 좋지 않을까. 쓰는 거 보다 말로 하는 게 더 필요한 거 같고. 그렇게 하면 너무 쓰는 거에 급급해하지 않을 거 같아요. 학기 말에 한꺼번에 정리해서 적는 게.”(참여자 7)

2. 디브리핑 진행의 제약

1) 토론이 팀 분위기에 따라 달라짐

참여자들은 팀원들의 성향이 조용하면 팀 토론이 활발하지 못하고, 팀원들의 성향이 활발하면 팀 토론이 활발해지는 등 팀 분위기가 토론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그리고 개선할 점을 얘기했을 때 팀원이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기분 나빠 할까 봐 눈치를 보며 애써 좋은 점만 얘기하게 되어 때로는 솔직한 의견을 내기 힘들어서 아쉬워하였다. 팀원들이 사적으로 서로 친하지 않은 경우 객관적인 자세로 팀 토론을 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목소리를 안 내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제가 의견을 내고, 친구들이 의견을 냈을 때 나는 ‘이게 아닌 거 같다’라는 말을 했을 때 이 친구들은 그대로 수긍해 버리니까 제 의견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저랑 같이 조를 했던 K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의견을 냈지만, 다른 조원들은 크게 의견을 안 내니까 좀 아쉬웠어요. 디브리핑했을 때 ‘우리가 이게 좀 부족했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다른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했던 거에 대해서 ‘이게 조금 더 부족했던 거 같다’라는 얘기를 해줬으면 저희가 조금 더 서로의 개선점을 더 알게 되었을 거 같은 데 그렇지 못한 점 조금 전 안타까웠어요.”(참여자 1)

“저희 조는 제가 주도적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힘들었던 적은 없었는데, 한 학생이 본격적으로 물고를 트는 순간 말리기가 좀 힘들었어요. 너무 활발했어요.”(참여자 2)

“토론할 때 제가 얘기를 하면 그것만 가지고 받아들이면 좋은데, 팀원들끼리 의견이 안 맞을 때 기분을 상해하거나, ‘이거 조금 이렇게 하면 어땠을까?’하고 얘기를 했는데, ‘어? 난 똑바로 했는데?’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니까 개선할 부분에 대해 서로 말을 더 아끼게 되고, 좀 더 생각을 해서 말하게 되고, 조원들 반응에 따라 제 의견이 바뀌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쉬웠어요.”(참여자 3)

“조금 부족한 친구들이 있고, 소심한 사람이 많고 하면은 분위기 자체가 확 다운되는 게 있어요.”(참여자 5)

“저희 조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지적받아도 ‘아, 내가 놓쳤네?’ 이라고 그냥 끝. 근데 그게 중요한 거 같아요. 조 분위기. 저는 팀 분위기가 좋아서 디브리핑이 좋았어요. 조 편성을 교수님이 랜덤으로 하셨잖아요. 그게 좋은 거 같아요. 너무 친한 사람들이랑 하면 솔직하지 못할 거 같아요. 맨날 보고 이러니까 솔직하지 못하고.”(참여자 6)

“다들 성향이 다르니까 좋았어요. 친한 애들끼리 모이면 친하지 않은 애들은 뒤로 빠지고 깨네들끼리 되어버리니까. 소심한 애들끼리 모여 있으면 아무도 얘기 안 할거고.”(참여자 7)

2) 토론보다 성적평가를 위한 지침서 작성에 더 집중하게 됨

참여자들은 디브리핑이 성적평가에 들어가니 토론보다 디브리핑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지침서에 적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성찰을 위해 팀원들 간의 토론이 더 중요하지만 지침서 작성에 몰두하는 것이 안타까웠다고 하였다. 그리고 성적을 잘 받기 위해 성찰보다 점수를 잘 받기 위한 답을 찾게 되었다고 하였다.

“저희는 적는 데만 계속. 그걸로 성적을 매기니까. 정말 깨알같이 적는 애들이 있거든요. 막 세네줄씩. 그러면 저는 ‘정말 애가 이렇게 느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chatGPT 쓰는 애들 있거든요.”(참여자 1)

“디브리핑 질문이 있으니 쓰기 바빠요.”(참여자 2)

“성적을 잘 받아야 한다는 그 부담감이 커진 느낌이에요.”(참여자 3)

“저는 항상 디브리핑을 하면서 느끼는 건 저희가 지침서를 작성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첫 번째 질문을 읽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러면 거기에서 더 반론이 없고, 같이 그걸로 통일을 해서 지침서 채우기를 해요. 그래서 디브리핑 시간이라기보다 지침서 채우는 시간. 숙제처럼 느껴지니까 빨리 빨리해서 한 명이 의견 내면 그거 따라서 적고 하는 게 있는 거 같아요.”(참여자 5)

3. 예비 간호사로서 내 모습 재점검

1) 받아들이기 힘든 나의 모습을 직면하였으나 점차 인정하게 됨

참여자들은 처음 영상을 활용한 팀 디브리핑을 할 때 평상시 자신이 외면하고 싶은 모습과 실수하는 모습을 팀원과 함께 보고 토론하는 것에 수치심을 느꼈고, 실수하는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으나, 디브리핑의 회차가 진행되면서 본인이 알지 못했던 습관을 알게 되고, 반복되는 실수를 보며 스스로 부족한 점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잘한 점보다는 못한 점만 찾아보게 된다고 하였다.

“안 좋은 게 눈에 되게 잘 보이더라고요. 저의 잘못된 점 아니면 조원들이 ‘아, 여기서는 이게 아니고 다른 거를 했어야 했는데, 이걸 사정을 했어야 했는데’, 제가 놓친 점을 계속 찾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거 같아요. 근데 그때는 장점에 대한 생각이 안 들었던 거 같아요. 첫 번째는 아무것도 거의 몰라서 그랬던 거 같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다들 디브리핑할 때 영상을 보면서 ‘우리 이때는 이렇게 할 거’라는 생각만 하고 ‘잘했다’라는 생각은 마치 이 종이 지침서에 적을 때 우리가 잘된 점 이런 거 할 때는 ‘맞아 우리가 의사소통을 잘 했던 거 같고, S-bar도 그래도 나

쁘지 않게 했던 거 같고'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잘 못했던 점이 더 많이 생각났어요.”(참여자 1)

“저희가 영상을 찍었잖아요. 저는 제 자신이 어떻게 실습하는지 처음 봤는데, 그거를 남들과 같이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많이 부끄럽고, 많이 수치스러웠어요. 잘했으면 모르겠는데, 버벅거린 것도 있고, 처음에는 많이 부끄럽다는 느낌이 강했어요.”(참여자 3)

“막상 영상을 보니까 ‘어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원래는 안 그랬는데’, 처음엔 저의 부족한 모습을 인정하기 싫었어요. ‘다음 실습 때는 안 그러겠지, 원래 이렇게 안 했으니까’ 생각했는데, 2차, 3차, 4차 하면서 계속 같은 실수를 하는 게 눈이 보이니까 ‘아, 이게 부족한 점이 맞구나, 이런 건 이제 고쳐야겠다’ 이런 식으로 개인 성찰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잘못된 부분만 더 눈에 보여서, 그냥 보통 때라면 ‘이거 아무래도 이렇게 했었어야 여차저차 돌아갔을텐데’ 하고 생각한다면, 저는 ‘여기서 내가 이렇게 했었어야 했는데 팀 활동에 영향을 줬구나’ 하고 생각을 해버려서, 오히려 제 행동만, 저의 행동의 잘못된 점만 더 찾게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계속 신경 쓰는 모습이 보였던 거 같아요. 저에 대한 행동만 신경 쓰게 됐어요.”(참여자 4)

“수행했던 거를 조원들이랑 같이 보면서 피드백을 하다보니까 내가 놓쳤던 거에 대해서 ‘아 내가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하구나, 난 이거 한 줄 알았는데 안 했구나’ 이런 식으로 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솔직히 제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알고 있었는데, 솔직히 좀 외면했는데,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면서 나오더라고요, 제가 부족한 부분이.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봐버리니까, 현실로 다가오니가 당혹스럽고 자존심 상했어요. 만약에 혼자 영상을 봤으면 끝까지 외면했을 거 같아요.”(참여자 6)

2) 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되새겨봄

참여자들은 평소 배어있던 여러 습관을 확인하게 되었고, 임상 현장에서 갖추어야 할 간호사의 모습을 떠올리며 나쁜 습관을 개선하고 싶어 하였다.

“제가 몰랐던 버릇이 있었어요. 당황할 때마다 불을 만진다거나 그런 것들을 카메라에서 영상을 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괜찮았던 거 같아요. 좋은 건 눈에 안 들어오고 나쁜 습관만 눈에 들어왔어요. 그럴 땐 당황스럽고, 이런 건 빨리 고쳐야겠다.”(참여자 2)

“디브리핑을 1차, 2차, 3차, 4차를 해가면서 내가 이때 했던 행동들을 스스로 다시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때 만약에 ‘진짜 실제 상황이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 성찰을 하게 됐어요. 평소 자기 모습을 잘 볼 수 없는데, 디브리핑할 때 제 모습을 보고 제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말투나 그런 것들을 환자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런 것도 다시 보게 됐고. 현장에서도 저희는 팀 간호를 해야되는데 의사소통하는 스킬이라든지. 보는 눈 자체가 좀 달라진 게 있는 거 같아요.”(참여자 3)

“저는 핵심간호술을 엄청 많이 했었고, 시험까지 쳐서 올라왔는데, 영상에서 항상 할 때마다 빠뜨리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핵심간호술 할 때 ‘이런 거 아니까 패스, 패스’했던 것들이 습관처럼 남아서 시뮬레이션을 할 때도 패스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아, 이걸 했다 하고, 했다 하고’ 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습관처럼 남아서 ‘했다 치고’ 하는 부분들이 초반에 많았어요. 그래서 ‘했다 하고’가 아니고 ‘해야 했는데’ 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금씩 개선이 되는 거 같았어요. 디브리핑을 통해서 저를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된 거 같아요.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는 본인만의 기준이 있는데, 그걸 다른 사람들이 지적 해주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보완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객관적인 피드백이 들어오면 그걸 수용하고, 성찰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어요.”(참여자 5)

“3년 동안 배운 내용을 통합적으로 대상자한테 하는 거잖아요. 임상에 나가기 전에 예행연습을 한 거 같아요. 내가 어떤 점이 부족하다.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된다, 이런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된 거 같아요.”(참여자 6)

4. 향상되는 협력과 대인관계 기술

1) 팀워크의 중요성을 깨달음

참여자들은 처음 시뮬레이션 실습을 할 때에는 본인이 맡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만 집중했으나 디브리핑을 통해 점차 팀원의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고, 자신도 도움을 받게 되었으며,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팀 활동에 안 좋은 영향을 줄까 걱정을 하며 자신의 역할이 팀 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점차 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저는 디브리핑하면서 좋았던 점은 처음에는 팀워크가 없었고, 자기 역할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역할만 계속했는데, 한 회차, 회차 지나면서 내 역할 뿐만 아니고 상대방의 역할에서 조금 부족한 게 있으면 그걸 도와주게 되고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팀이 도와줘서 팀워크를 좀 형성 하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됐던 거 같아요. 처음 1회차랑 4회차 영상을 비교해 보면 서로 도와주는 게 달라요. 처음에는 아예 손 놓고 그냥 바라만 봤으면 4회차 때는 누가 멈춰 있을 때 바로바로 피드백을 주거나 도움을 주는 모습들이 꽤 많더라고요. 디브리핑도 확실히 팀원 간의 의사

소통을 하다보니까, 내가 팀한테 얻는 것도 있고, 내가 팀한테 주는 것도 있어요.”(참여자 3)

“제가 어떤 행동을 하나하나 할 때도 ‘이게 애네들한테 어떻게 미칠까?’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면서 하게 됐어요. 예전 같았으면 제가 이런 수업에서 의견을 내는 게 제 성격에 안 맞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제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니까 내가 이렇게 할 게’ 이렇게 조금 더 주도적으로 하게 됐어요.”(참여자 4)

“한 조로 같이 들어가서 시험을 쳐서 그 결과를 동일하게 받는 거니까 ‘내가 맡은 역할을 완벽하게 하지 못해서 점수나 성적에 피해를 줬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도 생기게 하는 거 같아요.”(참여자 5)

2) 의사소통 기술을 증진시키는 기회가 됨

참여자들은 디브리핑을 위한 토론 시 자신의 의견을 팀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한 번 더 생각하고, 팀원들의 반응을 파악하며 의견을 내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팀 토론이 활발하지 않으면 스스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토론을 주도하고, 팀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게 된다고 하였다.

“상대방이 기분이 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고, 저희 조는 대부분 말을 잘 안 해서 제가 먼저 친구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말을 하면 좀 해 줘’ 이렇게 의사소통의 시발점이 되었고, 조금 더 편하게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 걸 더 배운 거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받아들일 때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기보다 ‘내가 이런 게 문제 였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 대해 많이 배웠어요.”(참여자 1)

“말을 내뱉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긴 하더라고요.”(참여자 3)

“간호 진단을 내릴 때 우선순위가 다 다르잖아요. 디브리핑을 하면서 뭐가 우선적으로 중요한 건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를 다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는 게 신기했어요.”(참여자 7)

5. 간호 문제해결에 대한 자신감 증진

1) 간호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움

참여자들은 디브리핑을 통해 점차 시뮬레이션 구동할 때 간호 활동을 개선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사전학습을 더 열심히 하는 등 간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를 스스로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상황을 대할 때 불안감이 점차 없어졌으며, 간호사가 되었을 때 프리셉터 등 상급자와 디브리핑을 하게 되면 임상 적응을 빨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다.

“사전학습에 대해 공부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안에 들어가서 대처하는 능력이 중요하잖아요. 이거 하다가 갑자기 다른 상황이 벌어지면 다 모르니까. 간호 문제에 대해서 사전학습할 때 이 질병이 있을 때 이런 증상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합병증과 관련된 증상도 있고, 그런 증상들을 통합해서 간호 문제를 도출하고, 그만큼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 지금도 시뮬레이션 들어가기 전에는 조금 더 공부하고, 사정할 게 뭐가 더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게 돼요. 그만큼 조금 더 공부하고 지식이 더 많아진 거 같아요. 조금 더 폭넓게 보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뭐 상황이 벌어질까 기대됐어요.”(참여자 1)

“확실히 4회 차 때가 1회 차 때보다 나아졌어요. 디브리핑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시뮬레이션 할 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학기 시뮬레이션 할 때도 큰 도움이 된 거 같아요. 저는 나중에 임상에서 신규로 일할 때 서툴러서 틀린 행동을 많이 할 텐데, 프리셉터 간호사나 누군가가 디브리핑을 한다면 확실히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원래 시험 칠 때도 틀린 내용은 확실히 기억에 남잖아요. 그것처럼 디브리핑할 때도 ‘이거 사정했어야 했는데’ 이런 내용이 더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간호사로 일할 때 디브리핑을 한다면 더 기억에 잘 남아서 일을 더 빨리 익힐 수 있고,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참여자 2)

“사전학습에 대해 더 공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상황을 대할 때 저희의 태도가 좀 달라진 거 같고. 예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불안감이 있었더라면. 지금은 긴장감이 큰 거 같아요. 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원래는 이런 디브리핑을 하기 전에는 ‘내가 못 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이었으면, 지금은 ‘그래도 해봐야지 어떻게든,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잘할 수 있겠지’ 이 정도의 긴장감?”(참여자 3)

“실제 상황이란 비슷한 환경에서 하는 거라서 좀 더 저희가 ‘뭘 해야 될까’ 계속 생각하고 직접 수행을 한 결과 값이 나온 거라서 그런 현실 반영이 되는 부분이 도움이 된 거 같아요.”(참여자 5)

2) 시뮬레이션 경험을 임상실습 시 활용해 봄

참여자들은 시뮬레이션 활동을 통해 배운 내용을 임상실습 시 실제로 수행해보고 칭찬을 받아 뿌듯함을 느꼈다고 하였다.

“이 수업을 통해서 처음으로 S-bar 보고를 하게 되었잖아요. 제가 엄청 못 해서 디브리핑할 때도 팀원들한테 미안했어요. 근데 이번 임상 실습하면서 보고해야 할 환자에 대해서 질병, 배경, 이런 거를 다 파악하게 된 거예요. 보고할 때도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는 환자분이 이러이러한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 상황에서 실습의 질이 더 올라간 거 같아요. 그전에는 굳이 이런 거까지 보고해야 되나? 생각했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이 환자가 이러한 상태니까 이러한 건 진짜 보고를 해야겠다’라고. 선생님도 ‘오, 4학년 같네’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기분 좋았어요.”(참여자 4)

IV. 논의

본 연구는 간호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에서 영상을 활용한 팀 디브리핑에 대한 학습자의 경험을 탐색하기 위해 시도된 현상학적 연구로 5가지 범주를 도출하였다.

첫 번째, ‘디브리핑에 몰입 되어감’이었다. 학습자들은 디브리핑을 시뮬레이션 실습 시 처음 해보게 되어 처음에는 디브리핑이 낯설었지만, 점차 디브리핑이 진행되면서 간호 문제해결에 대해 생각해 보는 등 디브리핑의 의미와 방법에 익숙해졌다고 하였다. 그리고 디브리핑 시 팀별 영상을 함께 보며 같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 또한 사전브리핑, 구조화된 질문지와 교수자의 피드백 등 명확한 방식이 디브리핑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으며 보다 효율적인 디브리핑을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고 하였다. 영상을 활용한 디브리핑은 학습자의 경험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이를 시각화하여 디브리핑 과정에 현실감을 높여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한다. 이로 인해 성찰에 몰입을 높여 적극적인 토론이 가능하다[8, 15]. 그리고 팀 기반 학습은 학습자들에게 활동적이고 참여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학습자들이 직접 학습활동에 참여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학습 과정을 스스로 평가하고 성취감을 느끼게 되어 학습 동기를 강화시킨다[16]. 또한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사고의 질이 향상된다[17]. 이에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에서 학습활동에 대한 학습자의 동기를 강화하고 성찰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영상을 활용한 팀 디브리핑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구조화된 질문을 이용한 디브리핑은 학습자의 사고와 학습을 촉진 시키고[10], 사전브리핑을 통해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의 학습 목표, 시뮬레이션 실습 시 기본 규칙뿐만 아니라 디브리핑 과정에 대한 목적과 방법을 배우고[3], 교수자의 지지를 통해 학생들의 토론 참여를 유도하고, 강점과 약점을 명확하게 인식하며, 비판적 사고를 향상시킬 수 있다[5, 18, 20]. 효과적인 디브리핑을 위해 사전브리핑 시 시뮬레이션 실습 과정에 대해 명확한 안내를 하고, 학습자들이 다양한 방면으로 사고할 수 있는 구조화된 질문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하겠다. 그리고 간호교육기관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이 핵심 역량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교수 학습법을 적용하고 있다. 간호 실습 교육 시 성찰을 하지만 구조적인 디브리핑은 시뮬레이션 실습에서 진행되므로, 시뮬레이션 실습 외의 교수 학습 방법에서 디브리핑 방식을 차용하여 학생들에게 깊이 있는 성찰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겠다.

두 번째, ‘디브리핑 진행의 제약’이었다. 학습자들은 디브리핑 시 팀원들의 성향과 팀 분위기에 따라 토론의 질이 달라지고, 성적평가를 위해 토론보다 지킴서 작성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하였다. 솔직하고 개방적이며 정직한 방식으로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디브리핑에 효과적이다[3]. 그리고 팀 기반학습에서 교수자가 학습자 간의 의견 교환과 사고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디브리핑 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사전브리핑 시 학습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ice breaking 등 동기유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팀 분위기를 형성하고, 교수자는 촉진자로서 칭찬, 격려 등 적절한 외적 동기부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팀 편성 전 학습자들의 성향을 파악하거나 무작위로 팀 편성을 하여 다양한 성향의 학생들이 한 팀을 이루도록 하며, 학습자들의 성향에 맞추어 구두 토론 외에도 메모지에 의견 적어 내기 등 다양한 방식의 토론을 진행해야 하겠다. 또한 성적평가에 치중되지 않도록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예비 간호사로서 내 모습을 재점검함’이었다. 학습자들은 시뮬레이션 구동이 녹화된 영상을 통해 실수하는 모습 등 받아들이기 힘든 모습을 직면하여 수치심을 느끼고, 부족한 모습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디브리핑을 진행하면서 반복되는 실수를 보며 점차 인정하게 되고, 평소 배어있던 안 좋은 습관을 확인하게 되면서 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하였다. 영상 기록을 활용한 디브리핑은 기억에 의존하여 시뮬레이션 상황을 떠올리는 것보다 명확한 시뮬레이션 구동 시의 모습을 확인하여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할 수 있어 자기성찰 기회를 제공하며, 간호 문제 상황판단과 비판적 사고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6, 8, 9, 18, 19]. 예비 간호사로서의 준비도를 파악하고, 역량을 점검하는 데 간호 시뮬레이션 실습 시 영상을 활용한 팀 디브리핑이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네 번째, ‘협력과 대인관계 기술을 배움’이었다. 학습자들은 디브리핑 시 영상을 보며 간호 문제해결 과정에서 팀워크의 중요성을 깨달아 점

차 팀원들을 도와주게 되고, 토론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며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는 등 토론을 통해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하였다. 팀 기반 학습은 학습자들이 토론을 하면서 팀 구성원들의 사고를 비교하며 해석하는 노력으로 인해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며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주고[17], 나아가 팀워크 형성에 도움을 준다. 팀 구성원들 간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사고력을 증진하고, 학습능력에도 도움을 준다[17]. 임상현장에서 간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대상자와 보건의료 인력 등 타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성찰과 의사소통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팀 기반 디브리핑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 번째, ‘간호 문제해결에 대한 자신감이 생김’이었다. 학습자들은 디브리핑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고, 시뮬레이션 구동을 위한 사전학습을 철저히 하는 등 간호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를 임상실습 시 적용해 보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신규간호사가 되었을 때 임상 적응을 위해 상급자와 디브리핑을 하길 원했다.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에서 학습자 중심의 디브리핑은 개선점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며 실제 임상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고[18]. 각 수행 과정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숙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임상 수행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8]. 그리고 팀 디브리핑 시 학생들은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팀과 자신이 수행한 것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하였기 때문에, 직후 이어지는 시뮬레이션에 더욱 몰입하였고, 목표를 성취하였을 때 자신감을 느낄 수 있다[11]. 간호 문제해결을 위해 학생들 스스로 개선할 점을 찾고, 개선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이를 통해 간호 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낮출 수 있으므로 간호 학생들의 임상 적응을 위한 교육 방법으로 시뮬레이션 실습 시 영상을 활용한 팀 디브리핑을 고려할 수 있겠다.

V. 결론

본 연구는 간호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에서 영상을 활용한 팀 디브리핑에 대한 학습자의 경험을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5개의 범주를 도출하였으며, 디브리핑에 몰입 되어감, 디브리핑 진행의 제약, 예비간호사로서 내 모습 재점검, 향상되는 협력과 대인관계 기술, 간호문제해결에 대한 자신감 증진이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간호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에서 영상을 활용한 팀 디브리핑은 학습자의 성찰 활동에 효과가 있고, 간호역량을 강화할 수 있음을 제시하여 디브리핑 방법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자 성향에 따른 디브리핑 방법에 대한 연구를 제안한다.

Conflict of interest

The authors declared no conflicts of interest.

Funding

None.

Authors contribution

Conceptualization: KimYI; Data curation: KimYI and Back Y; Formal analysis: KimYI and Back Y; Funding acquisition: N/A; Investigation: KimYI and Back Y; Methodology: KimYI and Back Y; Project administration: KimYI; Resources: KimYI and Back Y; Software: KimYI; Supervision: KimYI; Validation: KimYI; Visualization: KimYI; Writing—original draft: KimYI; Writing—review & editing: Back Y.

References

1.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Handbook of nursing education certification evaluation for nursing school: The first·second half of 2023. Seoul: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23.
2. Shin SJ, Yang EB, Hwang EH, Kim KH, Kim YJ, Jung DY.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 of nursing education for clinical practice. Korean Medical Education Review. 2017;19(2):76-82. <https://doi.org/10.17496/kmer.2017.19.2.76>

3. Jeffries PR. A framework for designing, implementing, and evaluating simulations used as teaching strategies in nursing. *Nursing Education Perspectives*. 2005;26(2):96-103.
4. Fanning RM, Gaba DM. The role of debriefing in simulation-based learning. *Simulation in Healthcare*. 2007;2(2):115-125. <https://doi.org/10.1097/SIH.0b013e3180315539>
5. Choi EH, Kwag YK. Problem solving & critical thinking between instructor and senior debriefing in simulation education for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2016;6(4):191-200. <https://doi.org/10.35873/ajmahs.2016.6.4.020>
6. Park SK. Content analysis of disaster nursing simulation debriefing experienced by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022;13(2):2125-2140. <https://doi.org/10.22143/HSS21.13.2.149>
7. Choi SE, Kim HJ. Effect of structured debriefing on the learning outcomes of nursing students in simulation-based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2018;22(9):1208-1213. <https://doi.org/10.6109/jkiice.2018.22.9.1208>
8. Lee SH, Eom MR. The effects of structured debriefing methods in simulation based blood transfusion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9;19(9):1-21. <https://doi.org/10.22251/jlcci.2019.19.9.1>
9. Choi HS, Kim JY. Comparison of clinical competence, problem-solving, self-efficacy and satisfaction of self and peer-led debriefing in simulation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23;23(11):339-351. <https://doi.org/10.22251/jlcci.2023.23.11.339>
10. Song YS, Park S. Effectiveness of debriefing in simulation-based education for nursing student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022;29(4):399-415. <https://doi.org/10.7739/jkafn.2022.29.4.399>
11. Lee JH, Lee HJ, Kim S, Choi MN, Ko IS, Bae JY, et al. Debriefing methods and learning outcomes in simulation nursing education: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Nurse Education Today*. 2020;87:104345. <https://doi.org/10.1016/j.nedt.2020.104345>
12. Ko SJ, Choi EH. Effect of team debriefing in simulation-based cardiac arrest emergency nursing education.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017;29(6):667-676. <https://doi.org/10.7475/kjan.2017.29.6.667>
13. Colaizzi PF.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Valle RS, Kings M, editors. *Existential-Phenomenological Alternative for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p. 48-71.
14. Guba EG, Lincoln YS. Effective evaluation: Improving the usefulness of evaluation results through responsive and naturalistic approaches.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1981. p. 103.
15. Rueda-Medina B, Reina-Cabello JC, Buendía-Castro M, Aguilar-Ferrándiz ME, Gil-Gutiérrez R, Tapia-Haro RM, et al. Effectiveness of video-assisted debriefing versus oral debriefing in simulation-based interdisciplinary health professions education: A randomized trial. *Nurse Education in Practice*. 2024;75:103901. <https://doi.org/10.1016/j.nepr.2024.103901>
16. Oh SA, Lyu JH. Changes in faculty trust, class engagement, and learning motivation in team-based project learning.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25;25(3):207-222. <https://doi.org/10.22251/jlcci.2025.25.3.207>
17. Jun HS, Ju HJ. The effect of term based learning on communication ability, problem solving ability and self-directed learning in nursing science educ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7;15(10):269-279. <https://doi.org/10.14400/jdc.2017.15.10.269>
18. Kim JY. Hybrid nursing simulation training with multiperspective debriefing: A mixed methods case study.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23;23(20):319-337. <https://doi.org/10.22251/jlcci.2023.23.20.319>
19. Choi EH, Lee EJ. Clinical practice and debriefing satisfaction after simulation debriefing with video.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imulation in Nursing*. 2015;3(2):23-33.
20. Kim EJ, Kim YJ, Moon SM. Nursing students' perceptions of meaning, response, and effective methods for debriefing in simulation-based educ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017;24(1):51-59. <https://doi.org/10.7739/jkafn.2017.24.1.51>